

주주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임 행장으로 취임한 지가 두어달 전 같은데, 벌써 5 개월이 넘었군요. 뒤늦게나마 서면으로 문안 드리오며, 전년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요약 재무제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니뱅크는 지난 해 극심한 금융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업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1 억 2 천만불, 세후 당기순이익은 35 만 6 천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설립 2 년만에 이와 같은 이익을 내는 은행은 많지 않으며, 더우기 최근 허다한 유수 은행들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참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부실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자랑스럽게도 저희 은행은 단 한 건의 부실대출도 없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불가피하게 거금의 비용을 소송사건 해결을 위해서 지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비용 지출만 없었더라면, 저희 은행은 금년에 정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8 년이 금융계에 얼마나 힘든 한 해였던가는 연방정부의 긴급구제금융 조치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TARP” 긴급구제금융” 은 글자 그대로 어려움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행한 조치입니다. 구제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듯이, 저희 은행도 마찬가지로 구제금융이라는 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정부 구제금융을 아예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TARP 구제금융은 공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 꽤 비싼 자금으로서, warrant 등의 부대조건을 감안할 때 9%를 상회하는 고비용 자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은행들은 그 만큼 자금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유니뱅크는 단 한 건의 부실채권도 없고, 대출 수요를 충당할 자금이나 위험자산에 대비한 자기자본도 충분하여서 구태여 고비용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만큼 건실하고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은행을 “작은 고추” 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2 년밖에 안되었고 자산규모도 아직 작지만, 아무지고 맵고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연방은행 감독국 협회(FFIEC)가 3 개월마다 공개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UBPR)에 의하면, 광역 시애틀 지역에 본점을 둔 44 개 비교 은행 그룹(peer group)이 평균 자기자본의 17.13%에 달하는 부실여신을 안고 있는 데 비해, 유니뱅크는 부실 여신이 0.0%로 전무합니다. 또한 은행 건전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에서는, 시애틀 지역 비교그룹(peer group)의 평균이 14.48% 임에 비해 유니뱅크는 23.38%로 월등하게 높은 상태입니다.

“30 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 , “세계대전 이후 최악” 이라고 하는 극심한 경제난을 당하여, 몹시 힘들어 하시는 주주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마음 속 깊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님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런 금융난 가운데서도 잘 해나가고 있는 유니뱅크의 주주가 되심에 긍지를 가지시고, 금년 한 해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는 온 힘을 다 해 유니뱅크가 여러분께 위안과 희망이 되는 은행이 되도록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들도 금년 한 해, 주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 매기로 하였고, 경비 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직도 영업 위주로 개편하여 특수 영업팀(Marketing Task Force)을 만들었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신상품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지속될 경제적 재난을 지혜롭게 헤치고 나아가, 연말에 틀림없이 좋은 실적을 보여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주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금년 한 해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년 1 월 22 일

행장 이창열 배상

유니뱅크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희망의 새해를 맞아 주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행의 창립자 중 한 분이셨던 오덕주 전이사장님의 후임으로 새롭게 이사장을 맡게된 한용희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우리가 좀처럼 겪어 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 지역의 한인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개인과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은행은 역사가 오랜 어느 은행보다도 건전하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짧은 업력과 제한된 점포망 탓에 고객 기반이 한인사회 전체에 널리 확충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 기반도 넓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립 이래 한마음으로 뭉쳐 진정 열심히 일한 결과 어디서든 찾아 보기힘든 속도로 정상 궤도에 올라 모든이를 놀라게 한 저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잠시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비가 온 후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지금은 주주, 이사진, 경영진, 그리고 직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인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어 모든 한인 이민자에게 행복을 선사하고자 많은 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정성을 한 곳에 모아 출범한 우리 유니뱅크는 주주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경제난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

이사장으로서 저는 모든 일을 화합의 차원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은행에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내부의 분란과 불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 한 해에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저는 조기에 Tacoma 와 Federal Way 에 지점을 확충하여 한인사회 전체에 편리함과 경제적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견은행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8 월에 신임 행장이 취임한 이래 모든 직원들이 새 행장을 중심으로 잘 단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선 영업 위주로 조직이 개편되고 전직원이 사기 충천하여 새 힘을 쏟고 있어 분위기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2009 년이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유니뱅크는 38 년의 은행 경력을 지닌 신임행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하여 위기를 오히려 더욱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유니뱅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년 1 월 23 일

이사장 한용희

FINANCIAL STATEMENTS

Statement of Condition		Statement of Income	
(Unaudited)		(Unaudited)	
	(\$000)		(\$000)
	12/31/08		Period Ending
			12/31/08
Cash & Due from Banks	310	Interest Income	7,412
Fed Funds Sold	2,420	Interest Expense	3,106
Investments	18,591	Net Interest Income	4,306
Net Loans	99,639	Provision for Loan Losses	250
Premises & Fixed Assets	661	Gain on Sale of Loans	508
Other Assets	947	Other Non-interest Income	253
Total Assets	122,568	Salaries & Benefits	1,841
Deposits	75,928	Premises & Fixed Assets Expense	297
Borrowings	24,000	Other Non-interest Expense	2,060
Other Liabilities	486	Net Income before Income Taxes	619
Total Liabilities	100,414	Income Tax Provision	263
Stockholders' Equity	22,154	Net Income/(Loss)	356
Total Liabilities & Equity	122,568		

Management Team

Daniel Changyol Lee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Paul Sabado	EVP & Chief Credit Officer
Peter R. Park	SVP & Chief Financial Officer
Nanette Villanueva	SVP & Chief Operations Officer

New Products

Flex CD Allows two principal withdrawals before maturity without penalty. Account is closed when balance falls under \$10,000. Initial amount to open: \$50,000 up to \$220,000.

IRA (Traditional/Roth) Fixed rate CD used as a tool to save for retirement.

Special 3 CD Pays 5% APY interest for first 3 months before paying regular rate. Maturity of 3, 4, or 5 years.

Installment Savings Secured Loan (Consumer Loan)

Eligible for a loan up to the lesser of contract amount or \$50,000 after 1/3 of the contract Installment payments are made.